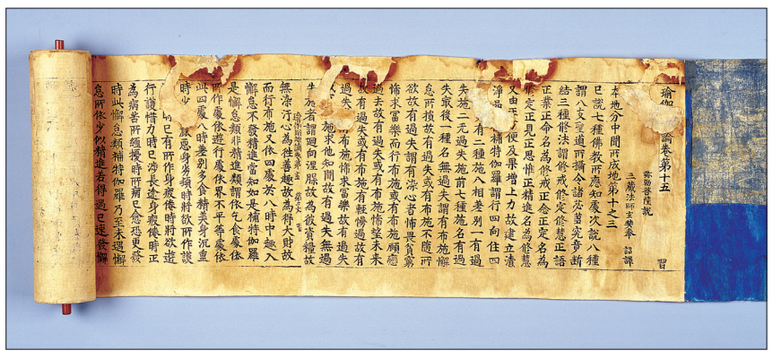
기증된 국보 '초조본 유가사지론' 만난다

국립중앙博 기증관 새 단장해
윤동한 기증 '수월관음도' 공개
기증 주제 전시공간 처음 선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송성문 기증.

문화유산 나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증관이 새롭게 단장했다. 새 단장을 마친 기증관에서는 불교 경전과 불화를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1월 12일부터 새 단장한 상설 전시공간인 기증관을 대중에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문을 연 기증관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이루어진 기증관 개편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 개편은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문화유산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기증된 문화유산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송성문 기증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5〉(국보)를 비롯해 △이홍근 기증 〈분청사기 상감 연꽃 넝쿨무늬 병〉(보물) △이근형 기증 〈이항복필 천자문〉(보물) △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나전경함〉(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재개관을 기념해 손창근 기증 〈세한도〉(국보)와 윤동한 기증 〈수월관음도〉를 5월 5일까지 특별 공개한다.

개편된 기증관은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증 오리엔테이션 공간'과 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기증품을 다양한 주제로 펼쳐 보이는 '기증 주제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12월에 먼저 문을 연 '기증 오리엔테이션 공간'(기증 I 실)은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증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기증의 의미를 담은 영상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수월관음도, 윤동한 기증.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기증 주제 전시 공간'(기증Ⅱ·Ⅲ·Ⅳ실)에는 기증자의 사연이 담긴 토기와 도자기에서 금속공예품, 목가구, 서화, 근현대 판화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기증 문화유산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전시실을 조성했다.

'기증Ⅱ실'은 '문화유산 지키기와 기증'이라는 주제로 20세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혼란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의 노력을 살펴본다. '기증Ⅲ실'은 '기증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조형성과 미감을 지닌 문화유산을 전시실을 가로지르는 중앙 통로 좌우에 전시하여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증Ⅳ실'은 '전통미술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공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기증관 개편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문화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면서 "전시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패널과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했고, 영상 공간에는 수어 영상과 음성 자막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1월 16일 지정 예고
17세기 건축양식 간직한 불전


보물로 지정예고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17세기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간직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승격·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서산 문수사는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유물을 통해 사찰의 창건 시기가 1346년(고려 충목왕 2)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1619년(광해군 11)에 편찬된 〈호산록〉에 사찰이 화재로 1동만 남았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옛 사찰로서의 명맥을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직사각형) 평면에 다포식 공포를 얹은 맞배지붕 형식의 불전이다. 정확한 중건 시기에 대한 고증 자료는 없으나, 주요 구조부의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와 방사성 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1630년대에 중건된 것으로 파악된다.

1728년(영조 4)에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집 모양의 닫집을 설치했다는 묵서 기록과 1751년(영조 27)의 중수 사실을 알 수 있는 명문 자료들을 통해 극락보전에 부분적 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내부 중앙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인 수미단을 두고 뒤쪽에 후불벽을 조성한 조선 중기 이전의 구성 양식을 갖는 등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17세기에 나타나는 단청의 문양과 채색이 주요 부재에 남아 있고, 대들보와 공포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 이후의 단청 변화가 나타나는 등 17세기 이후 단청의 문양과 채색의 시기별 변화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열암곡 마애부처님' 문학작품 공모전

조계종 문화부 3월 29일까지
시(시조) · 수필 · 소설 · 동화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과제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전국단위 문학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 주제는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글이다. 시와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화가 포함되며 참가 자격은 일반인 및 청소년으로 기성작가도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1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메일(jokbmedia@wehago.com)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상인 조계종 종정상은 일반과 청소년 분야별 최우수상 작품 중에 선정하며, 상장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인 총무원장상은 총 2작품에 일반 300만원, 청소년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밖에 우수상(문화재청장상)과 장려상, 입선 등에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작은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며, 응모서류와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 한글 문서파일 마지막 페이지에 응모자 성명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명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문화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011-1770

윤호섭 기자

문화사업단, '향적세계' 수강생 모집

정원 24명…선착순 마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가 2024년 1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재가자를 위한 초·중·고급 과정과 스님을 위한 승가 초급 과정이 주 1회 3시간씩 총 12주간 진행된다. 강좌당 정원은 24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재가자를 위한 초급 강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마련됐다. 유화 스님이 강의하는 수요반은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이 개설됐고, 수강 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동희 스님의 금요반은 2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열린다.

중급 과정은 주호 스님이 맡았다. 목요일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에 운영되며, 2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강의한다. 고급 과정은 경운 스님이 강의하며 화요일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에 진행된다. 고급 과정에는 현장 학습도 포함된다. 스님을 위한 승가 초급 과정은 동원 스님이 강사를 맡아 2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월요일 오후(14시~17시)에 강의한다.

향적세계 정규강좌 신청 및 수강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02-2655-2776)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보물 '백지은니 수능엄경' 보고서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는 〈백지은니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하 '백지은니 수능엄경') 권10 보존처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백지은니 수능엄경'은 1356년(고려 공민왕 5) 이방한(李邦翰)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하여 은니로 필사한 것으로, 능엄경(楞嚴經) 10권 중 마지막 권만 전해진다. 경전의 뒷부분에 간행 경위가 적혀 있고 필자와 연대가 명확하여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백지은니 수능엄경'의 재료 분석결과와 보존처리 과정, 손상 상태, 보존처리 과정 중 세척과 보강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에 관한 실험 등 보존처리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전문 사진과 X-선 사진이 별지로 수록됐다.

신중일 기자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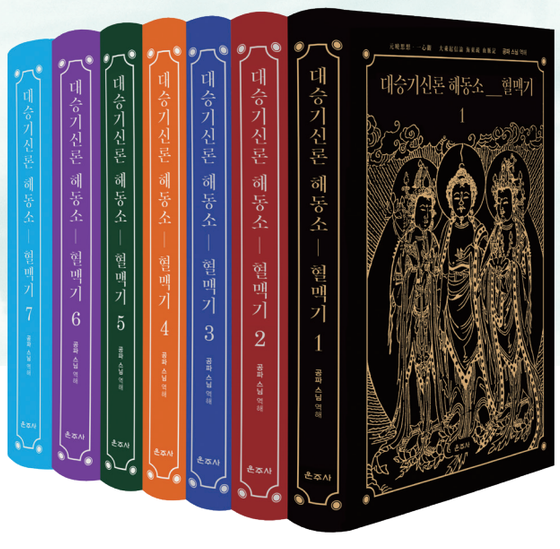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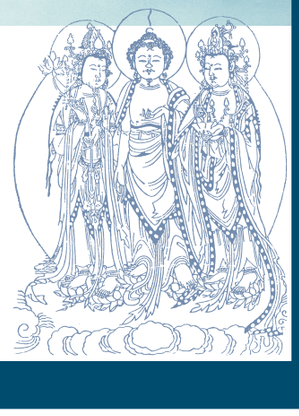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